



11월 2주차 |

주간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 및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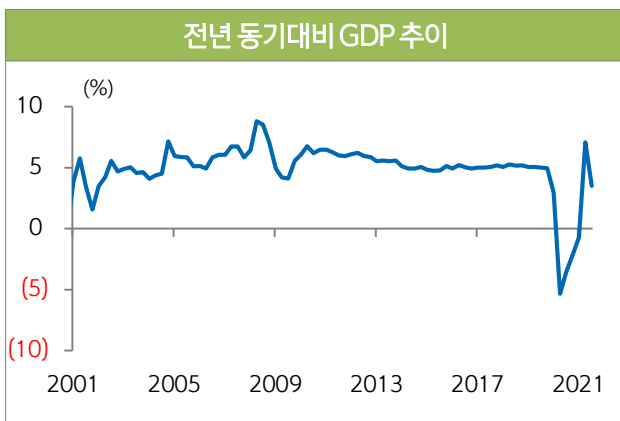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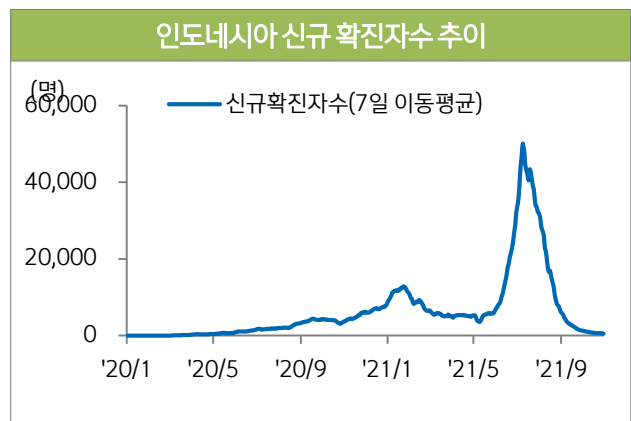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델타변이의 타격을 받은 인도네시아 21년 3분기 성장률. 4분기부터는 개선을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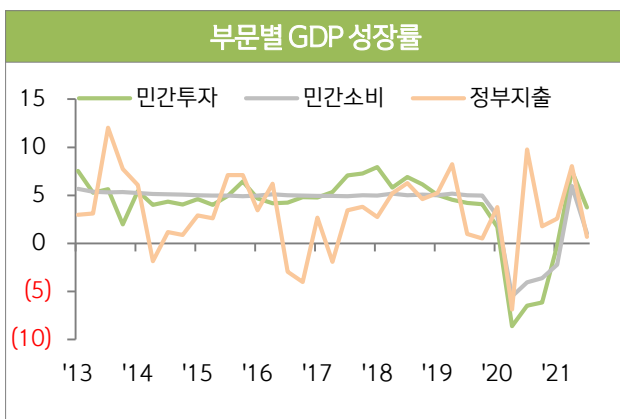
- ▶ 인도네시아의 '21년 3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3.51%, 전분기 대비 연율 1.55%를 기록하였음. 3분기에도 2분기에 이어 회복세가 지속되었지만, 2분기의 강한 성장 반등과 지난해 3분기의 -3.49% 성장을 감안한다면 3분기에는 회복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음. 지난 3분기 중 코로나델타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서 주요 지역에서의 대규모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된 영향
- ▶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1.03%, 정부지출은 전년대비 0.66% 증가하면서 전 분기 대비 큰 폭으로 성장세가 둔화. 정부가 코로나19 회복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하였으나 회복 지원보다는 코로나19 통제 조치 및 치료 등에만 예산이 사용되었을 뿐 사회적 거리 두기 하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집행되기 어려웠음. 민간투자는 전년대비 3.74%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으며, 수출 부문이 2분기에 이어 양호한 성과를 보인 것이 그나마 3분기 성장률 둔화를 방어한 모습
- ▶ 3분기의 성장률 둔화로 주요 기관들의 2021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음. IMF, OECD 등 주요 기관과 블룸버그의 컨센서스 모두 2021년 성장률이 4%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직까지 4% 성장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 미뤄진 코로나19 회복 예산 집행을 바탕으로 대규모 노동 투입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각종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통해 소비자 구매력을 개선하는 등 정부지출이 민간을 견인하는 조치들을 집중해나가는 중. 최근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원자재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은 4분기에도 수출부문의 양호한 성과를 기대하게 하는 요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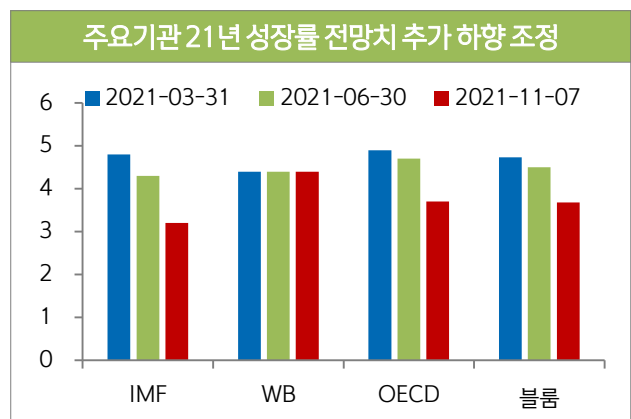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11.5	10.29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456.51	1,444.27	↑ 0.85	↑ 31.95	937.75 '20/11/05	1,456.51 '21/11/05
인니	자카르타종합	6,581.79	6,591.35	↓ -0.15	↑ 10.08	5,260.33 '20/11/05	6,658.77 '21/10/18
인도	SENSEX	60,067.62	59,306.93	↑ 1.28	↑ 25.79	41,340.16 '20/11/05	61,765.59 '21/10/18
중국	상해종합	3,491.57	3,547.34	↓ -1.57	↑ 0.53	3,310.10 '20/11/13	3,715.37 '21/09/13
	심천종합	2,406.42	2,400.03	↑ 0.27	↑ 3.31	2,160.91 '21/03/09	2,503.85 '21/07/22
홍콩	H	8,820.83	8,961.73	↓ -1.57	↓ -17.86	8,412.72 '21/10/06	12,228.63 '21/02/17
	항셱	24,870.51	25,377.24	↓ -2.00	↓ -8.67	23,966.49 '21/10/06	31,084.94 '21/02/17
한국	KOSPI	2,969.27	2,970.68	↓ -0.05	↑ 3.33	2,413.79 '20/11/05	3,305.21 '21/07/06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11.5	10.29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16	2.20	↓ -3.90	↓ -42.30	2.14 '21/09/20	2.60 '20/11/09
인도네시아	6.06	6.06	↑ 0.60	↑ 17.50	5.89 '20/12/30	6.80 '21/03/19
인도	6.36	6.39	↓ -2.90	↑ 49.30	5.82 '20/12/04	6.39 '21/10/18
중국	2.89	2.97	↓ -8.10	↓ -25.70	2.82 '21/08/06	3.36 '20/11/19
한국	2.35	2.56	↓ -21.30	↑ 62.80	1.53 '20/11/05	2.56 '21/10/29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구분	11.5	10.29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2,698.00	22,752.00	↓ -0.24	↓ -1.73	22,686.00 '21/11/04	23,175.00 '20/11/18
달러-루피아 (IDR)	14,331.00	14,168.00	↑ 1.15	↑ 2.00	13,895.00 '21/01/04	14,615.00 '21/04/15
달러-루피 (INR)	74.46	74.88	↓ -0.57	↑ 1.90	72.33 '21/02/24	75.52 '21/10/12
달러-위안 (CNY)	6.40	6.41	↓ -0.11	↓ -1.97	6.37 '21/05/28	6.63 '20/11/11
달러-원 (KRW)	1,185.42	1,168.40	↑ 1.46	↑ 9.10	1,081.81 '20/12/04	1,198.85 '21/10/12

주요 뉴스





아시아개발은행(ADB),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석탄화력발전 폐쇄 계획 설정



❖ 요약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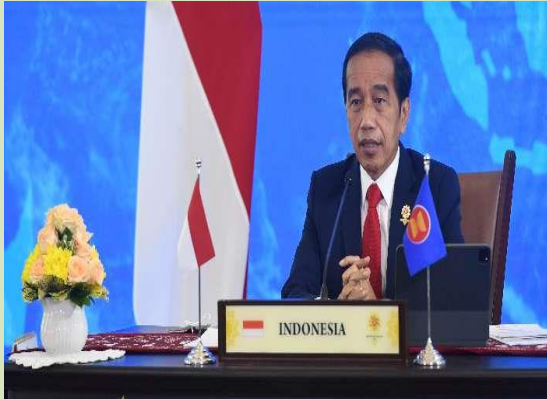
아시아개발은행은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석탄화력발전 관련 폐쇄 계획을 설정하고 향후 15년 이내에 사용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석탄화력 발전의 폐쇄를 앞당기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하였음. 이를 위해 민관이 보유한 석탄화력 발전 자원을 매입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탄소배출 감축에 있어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의 폐쇄에 속도를 높이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에너지 전환 메커니즘(ETM)이라 불리는 이 계획은 민관 합동 파트너십(PPP) 형식으로 해당 발전소를 사들이고, 향후 15년 이내에 사용을 종료시킴으로써 이전에 계획하였던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대비 조기에 폐쇄하는 방향임. 이러한 계획은 COP26 기간 중에 각국 대표들이 기후 변화와 관련한 행동 조치들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발표되었음.
- ADB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시범 사업국으로 선정하고 각국 정부와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일본 재무부가 이러한 계획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2500만 달러를 초기 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ADB는 발표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현재 전력 생산의 67% 가량을, 필리핀은 57% 가량을 석탄 화력으로부터 얻고 있음.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은 최대 계획에 기반할 경우 향후 10~15년 동안 석탄 화력발전을 50% 가량 폐쇄하여서 매년 약 2억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며, 2억 톤 수준은 차량 6,100만대가 배출하는 수준임

(출처 : Reuters)



인도네시아, 탄소배출권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탄소가격정책 도입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도 2060 탄소중립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된 탄소가격정책을 발표함. 내년부터 탄소세 부과를 결정한 것에 이어 준비를 거쳐 2025년부터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여 탄소배출 축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임

- ▶ 인도네시아는 탄소배출과 관련하여 가격을 부과하는 정책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기반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 메커니즘을 창출하기로 결정하였음. 세계 8위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임. 조코위 대통령은 COP26에 참여한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의 탄소가격제 관련 신규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이산화탄소 배출권 시장과 가격제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 탄소배출권 거래는 정부가 온실가스의 배출 한도를 결정하고, 이를 각 기업들에게 할당을 한 이후에 기업들의 실제 배출량에 따라 잉여분은 판매, 부족분은 매입하는 방식으로 원자재처럼 탄소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임. 인도네시아의 탄소가격제 관련 규정이 즉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초안에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할 경우 탄소배출권 잉여분을 판매할 수 있고, 환경부가 관련된 등록을 담당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탄소배출권 거래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거래소에서 이뤄지게 됨.
- ▶ 규정에서는 몇 가지 거래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는데, 캡앤트레이드 방식에 따라서 두 회사간에 거래를 수행할 수도 있고, 탄소배출권 할당량과 배출량의 차이에 기반해서 실제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납부 또는 감면을 받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음.
- ▶ 지난 7월, 인도네시아는 기존의 탄소중립 계획을 2070년에서 2060년으로 앞당긴 바 있음. 또한 2030년까지 자체적으로는 29%, 대외 금융지원을 받는다면 41%의 감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수림, 에너지 전환, 운송수단 선진화 등으로 달성해낸다는 계획임.
- ▶ 이번 탄소거래제도 관련 규정이 발표되기 이전에도, 일부 기업들은 밀림을 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융적인 혜택을 제공받고 있었음. 중부 칼리만탄 지역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Rimba Raya and Katingan Mentaya 프로젝트의 경우에 매년 1100만톤 상당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감축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탄소 배출 감축량을 자동차회사, 보험사, 가스회사 및 기술 기업 등이 그들 스스로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는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음

(뒷면 계속)

- Bukit Panjang Rantau Bayur 밀림 보전구역 주변의 거주자들은 팜오일 플랜테이션, 광업 및 산업 지역들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밀림 지역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외국 기관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2018년 이래로 해당 지역 거주민들은 Plan Vivo Foundation으로부터 인증받은 탄소 배출 노력에 대한 대가로 3.5억~10억 루피아 가량의 보상을 받았음.
- 탄소가격제는 최근 다른 방식인 탄소세 방식으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음. 탄소세를 도입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1kg 배출량에 대해 최소 30루피아의 탄소세를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이것은 내년 4월 석탄 화력 발전소에 부과되기 시작할 예정임. 탄소 배출권 시장은 2025년부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열탄 수출 국가이자,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65% 이상을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로 탄소세 도입 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재무부 장관은 외국으로부터의 충분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인도네시아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를 종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2056년 석탄화력발전 폐쇄 목표보다 앞당길 수 있다고 발표하였음.



국영전력회사 PLN의 2060년 탄소중립 달성 전략



❖ 요약 및 시사점

국영전력회사 PLN은 전기차의 보급 확대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는 한편, 전력 공급 측면에서는 석탄화력 발전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폐쇄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높여가고 CCUS 기술 도입 등을 진행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였음

- ▶ 국영전력회사 PLN은 전력 사용의 편의 증진과 전력 사용 증대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기본 업무와 별도로 전기 차량의 보급과 인덕션 조리기구 도입 확대를 통해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전력 중심으로 변환해나가는 것을 지원할 계획임. PLN은 가정에서 전력 공급을 늘리는 작업을 제안하는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 또한 PLN은 전기차량을 가정에서 충전하는 것에 대해서 7시간 분의 전력 요금을 인하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음.
- ▶ 2021년 10월 기준으로 PLN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서 47개 공공 전기차량 충전소(SPCLU)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말까지 67개의 신규 공공 전기차량 충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임. 여기에 더해, PLN은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 전기차량 충전소를 늘리는 것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음. 해당 모집 웹사이트를 통해서 기업체들은 투명하게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화석연료 기반의 운송 체계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된 충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한다고 PLN은 밝히고 있음.
- ▶ 전기 공급 측면에서는 석탄 화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68%에 달하는 수준인데, 이러한 석탄 화력 발전소를 2056년까지 종료하는 방향에 따라서 신규 신재생에너지 전력 발전소의 건설쪽으로 방향을 변경해가고 있음. 2030년까지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에 대응하여 해당 발전소들이 생산하고 있는 1GW의 용량을 준비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의 2단계를 위해서는 9GW의 용량이 대체되어야 하는 상황임. 3단계인 2040년에는 10GW의 대형 화력 발전소들이 폐쇄되므로 대체가 필요함. 그 이후 5년간에는 24GW를 그리고 마지막 2055년까지는 5GW의 용량이 폐쇄되는 방향임. 이러한 폐쇄에 따른 필요 용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단계적으로 전환해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 폐쇄와 함께, PLN은 발전소들이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작업을 진행할 계획임.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연료를 더 친환경적인 연료로 변경하는 것임. 예를 들어, PLN은 석탄화력 발전소에 바이오매스를 복합으로 투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 2025년까지 바이오매스 복합 화력발전을 52곳, 10.6GW 규모로 늘리는 계획에 따라서 매년 900만 톤의 바이오매스 펠릿이 소요될 예정임. 여기에 더해 2035년 이후의 로드맵에는 탄소 포획, 활용 및 저장(CCUS) 계획도 준비되고 있음

(뒷면 계속)

- CCUS는 대안적인 기술로 여겨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아직은 관련된 투자를 통해서 실현 가능성을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기술이 발전하면 CCUS의 이행과 관련한 이행 비용이 낮아지게 되고, 이를 활용하게 된다면 석탄화력 발전을 2060년까지도 일정부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한편, PLN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전력 운영을 더욱 효율적이고 활용성이 높게 운영하기 위해서 ESS 방식으로 대규모의 전력을 저장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이러한 전력 저장설비를 통해서 태양광발전(PLTS) 및 풍력발전(PLTB)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임. 여기에 더해서 연료전지나 수소 기술을 더욱 저렴하게 만드는 것도 고려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NRE) 발전소와 관련하여, PLN은 2060 탄소중립과 관련한 최선의 시나리오에서 2020년 기준으로 68%의 석탄화력 발전, 19%의 석유/가스 발전, 수력발전(PLTA) 7%, 지열발전(PLTP) 6%, 태양광발전(PLTS) 1%의 비중에서 2025년까지 일단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62%로 줄이고 1% 수준인 태양광 발전의 비중을 7%까지 끌어올리고 수력과 지열발전도 각각 8%까지 비중을 끌어올리는 계획임. 그리고 2035년에는 태양광발전의 비중을 23%까지 끌어올리고, 지열발전을 13%로, 수력발전을 9%로 끌어올릴 계획임. 2040년에는 CCUS를 적용하기 시작하여 비중을 24%로 하며,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을 통해서 4%의 비중을 확충할 계획임. 2040년이 되면 태양광 발전의 비중은 45%까지 증가하고, 석탄화력발전의 사용을 중단함. 2060년에는 태양광과 풍력 합계로 53%까지 증가하며, 지열발전은 14%, 그리고 그 외의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4%로 한다는 계획임



중앙은행, 1200만 상공인이 QRIS 이용한다고 발표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의 QR 결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은행 차원에서 표준안을 제시하고 실행한 QRIS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확대 및 정부차원의 홍보 등을 통해 상점들의 참여도 빠르게 늘어나고 사용처가 많아지면서 사용자도 빠르게 증가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QR코드표준(QRIS)을 사용하는 상공인들의 숫자가 2021년 11월 초에 1200만명을 달성하였다고 중앙은행이 발표하였음. QRIS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는 지급결제 QR 표준임. 중앙은행 총재는 QRIS를 이용하나 거래가 여러 산업에서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예기하면서, 경제적인 효율성, 경제 주체들의 금융 이용 증가, 코로나19 전파 위험 감소, 중소기업 거래 확대 등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였음.
- 이러한 QRIS의 성과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인도네시아 결제시스템 협회(ASPI), 지불결제서비스업자(PJP) 및 사회의 여러 부문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총재는 발표하였고, 협회는 QRIS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확대되면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음.
- QRIS의 이용확대로 국민들이 디지털 경제에 대한 체험을 늘리게 되었고, 다양한 부문에서 온라인 이용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중소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결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구호단체들도 QRIS를 통해 빠르고 편한 기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장점이라고 하였음.



인도네시아, 미국과 그린 경제 관련 협력 지속할 것



❖ 요약 및 시사점

COP26 기간 중 조코위 대통령은 환경 문제 이외에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등과 잇따라 회의를 진행하면서 내년 G20 의장국의 위치를 맡게 되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지와 경제협력, 그린 경제와 관련한 투자 등의 협력을 요청하였음

- ▶ 인도네시아와 미국이 그린 경제 및 지속가능 경제의 개발과 관련하여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조코위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COP26 회의 기간 중 따로 마련된 회담 자리에서 의견을 나누었다고 경제조정장관이 발표하였음. 양국은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밀림의 훼손 속도를 낮추며, 산불로 인한 환경 훼손을 줄이기로 협약을 맺었음.
- ▶ 조코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 자리에서 2022년 G20의 의장국으로써 인도네시아가 인도-태평양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한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였음.
- ▶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G20 의장국가 기간 중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 회복을 높이는 여러 협력 조치들을 진행하려고 검토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계획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음.
- ▶ 양국 관계는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코로나19 백신, 산소호흡기 및 치료 약물 등을 지원하는 등 매우 전략적으로 지원하면서 가까워지고 있음.
- ▶ 양국 정상 회의 중에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보건산업과 관련한 글로벌 공급망에 일원이 되려 한다는 희망을 비쳤음. 경제조정 장관은 빌&멜린다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빌게이츠를 만나 Mma 백신의 공동 생산, 포용 금융 등의 주제에 대해서 협력 등을 타진하였음.
- ▶ 조코위 대통령은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와도 회의를 가지며, 영국이 인도네시아와 연구개발 분야, 보건 분야에서 협력을 요청하였음. 인도네시아에 대한 제조업, 자동차업, 제약법, 보건업 등 다양한 영국 기업들의 투자를 요청하였음.



인도네시아,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컨셉에 대해 관심



❖ 요약 및 시사점

신규 행정수도를 건설중인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에서 진행중인 에코델타시티, 송도, 세종시 등 스마트시티 현장들에 대해 연말 방한을 통해서 확인하고 여기서의 경험을 인도네시아의 수도 건설에 참고하고자 함

- 행정및주택부(PUPR)는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 컨셉이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COP26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행정부 장관은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과 2021년 말에 방한하여 에코델타시티, 송도, 세종시 등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된 것들을 확인해보고 싶다는 일정을 조율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부 칼리만탄에 건설하려고 하는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수도 초안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였음.
- 장관은 지난 5월 있었던 양국간의 회의에서 인프라 관련 협력을 진행한 것을 내년 3월로 연기된 제 2차 아시아 국제 수자원주간(AIWW)에서 지속해나가자고 요청하였음.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도네시아에 327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



❖ 요약 및 시사점

조코위 대통령은 COP26 이후 아랍에미리트 순방에 나서면서 아랍에미리트의 투자자로 부터 327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발표하였음.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치를 지속하고 있음

- 투자부 장관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327억 달러, 469조 루피아 상당의 투자를 약속하였다고 발표하였음. 투자 대상 부문은 보건, 신재생에너지, 항만 인프라 및 식료품 등의 분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식료품 부문은 인도네시아의 묘목의 품질을 높여서 생산품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임.
- UAE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허가 발급의 편의성을 보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투자 유인 조치를 높일 것이라고 하면서, UAE 투자자들과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기업인들의 협력도 증진하기로 하였음.
- 투자부 장관은 올해 인도네시아의 투자 유치 규모가 3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Foxconn(폭스콘)과 투자 협약 체결 예정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은 폭스콘이 2차 전지, 전기차 및 관련 부품 산업과 관련한 대규모 투자 협약을 조만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외에도 다른 다양한 다국적 기업들로부터의 투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투자부 장관은 조만간 투자부가 다국적 전자회사 Foxconn(폭스콘)과 전기차 산업과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전체적인 규모와 투자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지만, 올해 안에는 이뤄질 것이라고 장관은 밝혔음.
- 조코위 대통령은 투자부에 2차전지, 전기차, 전기오토바이 및 통신 부품 등과 관련한 여러 국내 산업들에 대해 폭스콘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과 관련한 지시를 내렸음. 해당 투자는 국영기업에 대한 투자를 넘어 중소기업들에 대한 투자 등을 포함하고 있음. 폭스콘은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차량 부품 산업을 육성하는 것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품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음.
- 투자부는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전기차 산업에서 주요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거대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독일계 차량 회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다른 투자자들도 있다고 언급하였음. 최근 투자부 장관이 독일을 방문하면서 폭스바겐이나 바스프와 같은 기업들과 면담한 것을 염두하고 있는 것임